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년 사명자대회 은혜롭게 진행 중

10.8(주)-11.26(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1.20(월)-11.25(토) 새벽 5:00-6:00

2023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명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을 펼치는 2023 사명자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성경읽기표 일

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율기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웨스트민스터홀을 개방하였으니 새벽기도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언제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4 정책협의회

11월 11일(토)

2024년을 준비하는 목회정책협의회가 11월 11일(토)에 열립니다.

2024년도 교회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11월 11일(토), 12일(주일)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2024년 봉사지원서

11월 5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

2023년 올 한 해도 교구일꾼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24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11월 5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온라인 기도회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가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

등부 부모 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https://meet.google.com/iei-obmw-fhs>

대입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대입수능 당일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부터 수능 마치는 시간 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험생 자녀나 손자녀를 둔 학부모와 조부모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홀입니다.

시간	과목	순서	인도자
8:40-10:00	1교시 국어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손달익 목사 장석남 목사
쉬는 시간			
10:30-12:10	2교시 수학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조원영 목사 김익환 목사
점심시간			
13:10-14:20	3교시 영어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현종필 목사
쉬는 시간			
14:50-16:37	4교시 한국사 사회 과학 탐구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최종국 목사
쉬는 시간			
17:05-17:45	5교시 외국어 한문		개인기도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즐겁고 평온한 은혜

(왕하 11:17-21)



손달익 위임목사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좋은 자극제이며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침략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리스, 로마,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앗수르, 이집트 등 최강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고 강대국들끼리 서로 각축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삼거나 각자 편에 줄 서도록 강요하며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휘둘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고 치열한 국제 정세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하고 불안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의 열망은 언제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에서 평화시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20절)고 합니다.

1. 비극의 시작-하나님 없는 아합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대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였고,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겨우 7세였습니다. BC873년에 즉위하여 25년간 재위했던 여호사밧은 매우 믿음이 좋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기도로 국난을 극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 실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치동맹을 맺은 일이 그것이었습니다.(왕상 22:44) 그때 여호사밧은 두 왕국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합의 딸 아달라를 그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여호람이 8년을 재위하는 동안 아달라는 친정국인 북 왕국에 만연했던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유다 왕국과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왕하 8:18) 그 후 여호람 왕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1년 집권 뒤 사망하자 아달라는 이 혼란기를 틈타 다윗의 직계 후손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유다 왕국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라가 모든 다윗의 혈통들을 전멸시킬 때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요아스였습니다. 모든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가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6년을 몰래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은 측근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켜 아달라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나라 안에 즐거움과 평화를 회복했습니다.(왕하 11장)

당시 여호사밧도 아합도 모두 성공적인 통치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손잡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맹을 구축하면 역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 16:5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고후 4:7). 능력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평화를 위한 연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이 동맹은 평화 대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력과 패륜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주인이시며 그가 능력이시며 그가 역사의 목적이십니다.

2. 희망의 시작-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 혼란의 역사를 즐겁고 평온한 역사로 만든 중요한 인물 가운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달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 이미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고령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국가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달라가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학살하던 날 여호야다 제사장은 부인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 왕자를 빼냅니다.(대하22:11)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우다가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용병들을 동원하고 전국에서 의거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성전 호위병들을 설득하여 아달라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을 잘 보필하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왕하 12:2) 여호야다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요아스를 옹립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가진 왕권에 대

한 하나님의 뜻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입니다. 역사가 혼돈과 무질서와 부도덕에 빠졌을 때 여호야다라는 한 노인 제사장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에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온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동맹은 평화 대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력과 패륜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주인이시며 그가 능력이시며
그가 역사의 목적이십니다

3. 즐거워하고 평온한 은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17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원하던 왕국을 건설한 후 평화롭고 번성하는 나라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불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불안정했고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므로 나라 안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안으로는 불안과 공포가 넘치고 외부적으로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된 하나님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렘 11:19-20)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은 즐거워하고 나라 안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왕이 된 그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성경은 더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지도자였는지를 성경은 숨김없이 기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찾고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고 평온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박미정 권사
(2023 사명자대회 봉사분과)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한 해의 결실과 종착점에 가까운 시기니 자연스럽게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혹은 이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젊은 날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세상 물욕에 은과 옷을 받고 속여 나병에 걸렸다가(열왕기하 5:20-27) 다시 엘리사의 사환이 된(열왕기하 8:4-5)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을 좇는 삶에서 다시 구원 받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정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소원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겸손히 무릎 꿇고 싶습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에스더전도회 회장의 직분을 맡게 되면서 기도와 봉사를 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낄 때

가 많았습니다. 11월 11일(토) 성경암송대회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말은 암송 구절 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잠언 12:14)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봉사' 사명자대회의 특별새벽기도회 조식 봉사를 담당할 저로서는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와 찬양의 잔을 높이 들고 한 해를 마무리 하길 바랍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 빛과 색이 바뀌면서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 계절에 사명자대회에 적극 참여하시어서 주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부흥의 역사가 서울교회에 임하길 바랍니다.

10월 새가족부 수료자

환영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정영규 성도 (교구)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생활과 수련과정과 및 개업의 시기 등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 교육문제로 대치동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서울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한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많이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에 뿌

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침마다 권면해 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박미라 전도사님 그리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김준목 교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강박한 마음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교회에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저희 가족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며...

황태인 성도(3교구)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새신자 황태인입니다. 어느덧 5주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5주는 제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난 40년간 여러 나라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새가족부를 접했었지만 제 아내와 함께 한 가정으로써 새 가족 교육을 받으니 이제야 제가 결혼을 했구나 실감이 나는 거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이끌어 주는 시간,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고난의 연속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미션을 저희 부부에게 주실지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교회로 인도하신 뜻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저나 제 아내에게 어려운 미션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교회 성도로서 서울교회 교인들의 도움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교육을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인도네시아는 건기입니다.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는 말라서 갈라져가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많은 이들이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선교사는 지난 학기에 압디엘 학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과 한국어 학당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성일 선교사가 오마바빠 선교센터가 있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어린이들이 이성일 선교사를 따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성일 선교사를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풀타임 사역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딸 과란 하늘이는 이성일 선교사에게 “엄마는 항상 아이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성일 선교사가 매일 나오는 오마바빠 선교센터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린이들과 젠틀리 클럽 성경 학습을 마치고 셀카를 찍고는 이성일 선교사도 놀랐습니다. 이성일 선교사가 없는 어린이들의 사진은 너무나 평범한데 이성일 선교사가 있는 사진은 어린이들의 너무나 행복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이성일 선교사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선교지 소식

압디엘교회 음악대학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신입생(압디엘 졸업생 3명 포함)이 이번 새 학기에 전국 각지에서 입학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실기수업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사, 지휘법 기초, 찬송가 학, 성악 교수법, 작곡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처럼 교회 음악대학과 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압디엘교회 음악과 학생들의 성가대는 성탄절에 순회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는 서광중 선교사가 직접 서두 부를 편곡하였고 내레이션을 만들어 칸타타 형식으로 진행되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로고가 정해졌습니다.

‘오마바빠’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로고를 사용하였습니다.



Omah Bapak Community Center

오마바빠 선교센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울 수 없는 이곳에서 피아노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인기 있는 레슨 과목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음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악보 읽는 법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치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오마바빠 선교센터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현재 이성일 선교사 혼자서 이론과 실기 모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현지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마바빠 선교센터는 어린이들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부족한 학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지 초등학교 교사인 미스 리즈끼(Miss. Rezky)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스 리즈끼는 실력이 좋고 어린이들 컨트롤을 잘해서 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입니다. 미스 리즈끼는 지난 수요일(9월 6일)에 결혼을 하여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젠틀리 클럽(Gentily Club: Genesis to Revelation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젠틀리 클럽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공부 클럽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클럽입니다. 성경공부를 한 후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합니다. 이슬람 어린이들도 부모들의 허락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어린이들은 매주 토요일에는 수영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일에는 수영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수영 코치인 빠 아궁(Mr. Agung)이 지역 장애인 수영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빠 아궁 코치는 ‘아니따(Anita)’ 선교사님이 레슨비를 지불 하셔서 매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에 현지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방을 하나 비워서 저희가 그동안 모아 두었던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을 정리하고 비치하여서 현지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대여하려고 합니다.

이성일 선교사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교회학교 교육 자료실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이성일 선교사가 제작한 자료들을 소액의 회원 가입비만으로 현지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개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2. 압디엘교회 음악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3.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회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4.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영구적인 장소를 위하여
5. 미스 리즈끼의 새 가정을 위해서
6. 젠틀리 클럽 어린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7.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서광중·이성일 선교사

조선적 기독교 운동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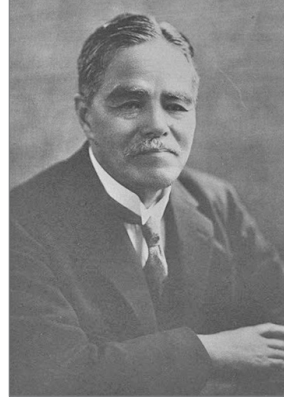
최태용 목사



최중진 목사



김인서 목사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김교신 목사

1910년대부터 반서구, 반선교사 경향을 보이며 독립적인 한국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들의 활동을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통칭한다. 1910년대에는 최중진과 김장호 같은 이들이 기성교회와 갈등을 빚었다. 최중진은 정읍, 태인 등 전라북도 지역에서 목회하던 장로회 목사였다. 그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5개 항목으로 된 교회 개선을 요구하였다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로 정죄를 받아 1910년 1월에 “대한예수교 자유회” 일명 자유교회를 설립하면서 교단을 탈퇴하였다.

김장호 역시 장로회 목사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군중이 도시락을 싸온 것으로, 흥해의 기적을 갈대밭 사이를 건넌 것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16년 6개월 휴직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김장호는 징계를 거부하고 목회를 계속하였고, 지속적으로 노회와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김장호는 1923년 자신의 처벌에 불복하면서 탈퇴를 선언하고 ‘조선기독교회’를 창립하였다. 이들은 비록 선교사와 갈등을 빚고 독자적인 교단을 설립하였지만 조선적 기독교를 깊이 고민한 것은 아니었다. 최중진은 지역 선교사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빚다 독자노선을 걸은 것이고 김장호는 자신의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이 이단성이 있다는 이유로 노회와 총회의 징계를 받아 이에 불복하고 이탈한 것이다.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시기의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 가지는 특징은 조선적인 신학을 고민하면서 서구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조선적 기독교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은 김인서, 이용도, 최태용, 김교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 중 김인서는 장로회 장로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조선적 신학을 추구하되 기성 교회 안에서의 부흥을 추구

하였다. 반면 나머지 세 명은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각각 기성 교회와는 구별되는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이용도의 예수교회, 최태용의 복음교회,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 중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단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최태용의 복음교회이다.

최태용과 김교신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우치무라는 일본에는 일본인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치무라의 “두 개의 J(Japan, Jesus)”는 지극히 애국적이었던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최태용과 김교신은 조선인은 조선인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선교사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최태용은 무교회주의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한 ‘비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신학을 구현하려고 애썼다. 최태용이 생각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살게 하는 것이요, 근본 생명과의 끊임없는 교통”이었다. 그는 신앙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였다. 최태용은 조선의 기독교에는 이런 신앙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고 “서양인의 죽은 교리”에는 조선인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리와 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영적 기독교’론을 주장하였다. 영적 기독교란 육인 나를 부인하고 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최태용은 처음에는 무교회주의에 입각한 독립 문서선교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내 한계를 절감하고 무교회주의를 포기하였다. 최소한의 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그는 오히려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론자가 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신학 중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은 철회하였

다. 일본에서부터 함께 우치무라의 영향을 받아왔던 김교신은 이런 최태용의 변신을 어이 없어 하며 ‘알루미늄 냄비’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태용은 1935년 서구교회로부터 제도적·경제적·신학적으로 독립된 조선적 기독교 교단으로 ‘기독교조선복음교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표어’를 발표하여 복음교회의 지향을 밝혔다.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 기독교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학문적 노력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면서 한국인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서양 선교사로부터의 독립은 그만큼 친일로 경도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최태용은 1942년 10월 ‘동광지광’에 쓴 글에서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섬기듯 일본 국가를 섬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의 친일행위를 하였다. 이런 최태용의 행보는 2006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가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고백문”에 교단의 죄책으로 포함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중 신사참배를 넘어 친일행위 전체를 죄책으로 고백한 것은 복음교회가 처음이었다.

복음교회는 이 고백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내용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역사 속의 죄책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엄하신 역사 안에 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각오”했다. 현재 복음교회는 약 50여 개의 교회가 소속된 작은 교단이지만 적극적인 사회 선교활동을 펼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득녀



- 8교구 유한영 집사·김보연 성도 득녀 유이나 아기 10월 14일(토)
(8교구 유형석 안수집사·제오복 권사 손녀)

식사 제공

- 4교구 최정순 권사·아들 이근대 집사 가정
(고 이찬호 은퇴안수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교회 역사의 시간 만큼 넓고 빛바랜 사명자대회 깃발을 오정수 원로장로님의 헌신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오후 1시-2시)	수	전도회 (오후 1시-2시)	토	선교회 (오후 1시-2시)
10.29	자원자	11.1	도르가, 루디아, 뵤뵤	11.4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5	자원자, 마리아	11.8	한나	11.11	바울, 엘리야
11.12	자원자	11.15	에스터	11.18	모세
11.19	자원자	11.22	리브가	11.25	이삭
11.26	자원자	11.29	권사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1월6일	월	요 19-21		11월6일	월	암 1-9, 읍, 온 1-4	
11월7일	화	행 1-2		11월7일	화	미 1-7, 나 1-3, 합 1-3	
11월8일	수	행 3-5		11월8일	수	습 1-3, 학 1-2, 슄 1-5	
11월9일	목	행 6-7		11월9일	목	스 6-14, 말 1-4	
11월10일	금	행 8-9		11월10일	금	마 1-6	
11월11일	토	행 10-12		11월11일	토	마 7-11	
11월12일	주일	행 13-14		11월12일	주일	마 12-15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한 해 뿌린 기도와 삶의 열매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도록 성령충만의 은혜 내려 주시고, 파송선교지, 비전2030 후원교회, 농어촌 후원교회, 70인전도대의 전도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 이 한주간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등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곳마다 도움의 손길 내밀어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